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12강 예수의 부활

I. 들어가는 말

1.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8-19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고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수난을 1) 영광으로 2) 그리스도의 왕위 등극식으로 3) 그리스도 왕국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20-21장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의 부활 기사를 길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에필로그(21장)도 예수의 부활현현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요한복음 부활 기사는 20-21장 두 장에 걸쳐 있습니다.

2) 요한복음 부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예수의 빈 무덤 발견(20:1-18)
 -예수의 빈 무덤에 함께 달려간 베드로와 애제자(1-10절)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11-18절)
2. 제자들에게 부활현현한 예수(19-31절)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19-23절)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24-29절)
 -요한복음 기록 목적(30-31절)
3. 부활 후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난 예수(21:1-14)
4. 베드로의 목양 사명과 애제자의 장수 사명(21:15-25)

3.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II. 예수의 빈 무덤에 함께 달려간 베드로와 애제자(20:1-10)

1. 요한복음의 부활기사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에 있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곧바로 베드로와 애제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애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애제자가 베드로에 앞서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애제자는 빈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첫 번째 목격자로서의 지위를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확인한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것을 확인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애

제자는 믿음을 보였다고 기록되었고 베드로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8절). 하지만 두 제자는 모두 빈 무덤이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9-10절).

2. 요한복음 기사에서 독특한 모티브 중 하나는 애제자와 베드로의 경쟁 모티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애제자는 같이 등장하여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13:23-26; 18:15-16; 21:7, 20-23). 이 본문에서도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애제자는 예수 빈 무덤의 공동 증인으로서 서로 협조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들은 무덤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빈 무덤을 목격한 것에 대한 반응도 서로 대조되게 묘사됩니다. 애제자가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이 애제자가 베드로보다 연소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체력이 더 앞선 것일 뿐,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너무 많이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사건 이후 애제자를 소개하면서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8절)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애제자가 베드로보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에는 애제자의 젊음을 의미하기보다는 보다 깊은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이 경쟁 모티브를 통해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대답은 두 제자의 경쟁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에 달려있다. 만약 이것이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쟁이었는지 아니면 우정에 근거한 순수한 경쟁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종류는 8절에 애제자가 "보고 믿었다"고 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애제자의 믿음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애제자의 믿음은 베드로의 침묵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지만 애제자의 믿음이 단순히 빈 무덤에 대한 것이었다면 베드로도 빈 무덤에 대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목격한 후의 양자의 반응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동사가 단순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연관되어 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애제자의 믿음은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단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9-10절)는 구절에 있는 내용과 상충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애제자도-아직 보혜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애제자의 믿음은 마리아의 빈 무덤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이 기사를 통해서 저자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통해 예수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서 기사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III.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20:11-18)

1. 베드로와 애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녀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에서 무덤 곁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무덤 속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수의 시체가 있던 곳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관복음서에는 젊은이(막 16:5), 천사(마 28:2-6) 혹은 빛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눅 24:4)이 빈 무덤의 의미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곧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를 알아보는 장면이 이곳에서 그대로 벌어집니다(요 10:1-18). 예수가 "마리아야" 하고 부르자 그녀는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그가 예수인 것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고 예수를 부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자 예수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교제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가 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1:12; 11:52)라는 개념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예수 부활에 대한 표준적인 고백을 합니다.

2. 여기서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모범적인 제자로서 묘사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의 첫 발견자로서 베드로와 애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빈 무덤 밖에 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활한 예수를 처음으로 목격하면서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3.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사도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의 요건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고전 9:1-2; 15:8-11; 갈 1:11-16). 마리아는 이 요건에 꼭 들어맞는 인물입니다. 다른 전승에서 베드로에게 부여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영광이(고전 15:5; 눅 24:34),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는 사도적인 부활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입으로 말해진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Ⅳ.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20:19-31)

1.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예수는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납니다(20-23절. "평안이 있으라"(출 4:18; 삿 6:23; 19:20; 삼상 25:6)는 히브리식의 상대방의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한 후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못 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과 함께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곧이어서 예수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후 죄 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합니다.

2.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가 제자들에게 부활현현한 후 목양의 사명을 줍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그 증인의 사명을 수여받게 됩니다.

3. 요한복음 부활기사의 마지막은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장식합니다(24-29절). 도마는 열두 제자 중의 하나였는데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도마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자신의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예수는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십자가에 달렸던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에 도마는 예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신앙고백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어 예수의 부드러운 권면이 뒤따릅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4. 도마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doubting Thomas)라는 어구를 떠올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대표자로서 부정적인 인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도마가 부정적으로만 묘사된 것은 아닙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그가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24절). 사실 요한복음 부활 기사에 의하면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들에게 십자가에 얻은 상흔을 보여줌으로 자신이 부활한 예수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특별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다른 제자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도마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얻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도마는 결국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이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최고의 신앙고백입니다.

5. 다만 도마 기사가 요한복음 부활 기사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것만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은 다분히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도마는 이러한 제2세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이 보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6. 예수의 부활 현현 기사 뒤에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 뒤따른다(30-31절). 개별 기사 기록을 끝내고 저자는 그 기록 목적을 명시한 것입니다(30-31절). 먼저, 저자는 자신의 기록을 "책"(cf. 21:25)이라고 표현한다(30절). 마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는데 반해(막 1:1) 요한은 이것을 책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책 내용이 예수가 행한 표적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예수가 직접 표적을 행한 것은 복음서 전반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저자가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맥에서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복음서 전체를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요한복음의 주요 기사인 표적에 관해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 책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표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표적을 포함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요한복음 부활 기사를 통해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부활기사 마지막 절에 있는 예수의 언명 속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20:29) 요한복음이 일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이후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룬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면 저자의 의도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8. 여기에서 저자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1) 첫째, 애제자와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1-18절).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이들이 예수가 약속한 성령강림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예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흔히 오해한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요 2:22; 7:39; 14:25-26; 16:12-15).
2) 둘째,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령을 부여함으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됨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19-23절). 3) 셋째, 예수의 부활과 성령 부여 사건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24-29절). 이 시대 사람들의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활을 확실히 목도한 증인(들)의 증언과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능해진다. 증인(들)은 "내[우리]가 주를 보았다"(20:18, 25)라고 증언하고 성령은 그 증언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증언하는 것이다(15:26-27). 성령 강림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도 보혜사의 도움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촉구된다. 또 그것은 오히려 보고 믿는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다.

V. 부활 후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난 예수(21:1-14)

1. 요한복음 21장 1-14절은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로 시작해서(1절에 2번) 같은 단어를 재차 사용하면서 끝맺습니다(14절). 저자는 "그 후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기사를 바로 앞 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부활 현현 기사와 연결시키려 합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의 무리에게 이미 두 번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디베랴 호숫가(갈릴리 바닷가; cf. 6:1)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이 기사를 통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앞 장에서 언급되었던 두 번에 걸친 예수 부활 현현 사건으로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증거가 필요해서 이 기사를 포함시킨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물고기와 빵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인가? 아니면 빈 무덤 사건(20:1-10)에서 끝나지 않은 베드로와 애제자의 경쟁 모티브를 되살려 저자가 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답이 복합된 것이 저자가 의도했던 점일 것입니다.

3. 요한복음 내용 전체에서 예수 부활 전후를 막론하고 "수제자"제자들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이 기사에서도 제자들의 리더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는 디베랴 호숫가에 있던 제자들의 명단에서 제일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끌고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권하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인도를 따릅니다. 7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부각되는 인물은 베드로와 애제자뿐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처럼 여기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요 리더이며 성격이 급한 사람이요(7절), 애제자는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7절).

4.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행동이 비신앙적, 나아가서는 타락한 행동인가 하는 것이다. 20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 후 이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20:19-23) 선교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부활 신앙을 저버린 행동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서 "이 밤에" 아무것도 낚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밤"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상징하는 바를 생각하면(3:2; 13:30)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행동은 타락한 행동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자체에는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일을 타락한 연결시키는 것은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벗어난 해석입니다. 이들이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당시에 흔한 낚시 방법으로 인간으로서의 생업의 일환이었을 것이고 예수는 그 생업의 현장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5.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는 새벽녘에 해변에 나타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새벽녘의 호숫가는 안개도 있을 수 있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슴푸레하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히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그러한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의 얼굴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와 같이(20:15) 제자들도 마음이 어두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듯이 고기잡이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6절)고 말하심으로써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6. 이 기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가장 많이 자아냈던 것은 물고기 숫자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왜 153마리인가? 단순히 많은 물고기라고만 하면 될 것을, 아니면 대략 백여 마리나 된다고 해도 될 것을 왜 구체적으로 153마리라고 했을까?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난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안들이 그야말로 제안일 뿐 그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수가 바닷가에 나타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건이며 이것에 대한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VI. 베드로의 목양 사명과 애제자의 장수 사명(21:15-25)

1.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고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한 후 예수는 이제 이들 중 베드로와만 상대하여 의미심장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는 다름 아닌 목양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15-19절). 첫 번째 대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 예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 베드로: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 예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 예수와 베드로는 첫 번째 대화 후에 비슷한 요지의 대화를 두 번 더 계속합니다. 세 번의 대화는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요지는 동일한 것입니다-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줄 때 세 번 반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다른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예수의 질문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대화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진다. 둘째, 예수가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는 문장 혹은 단어가 각각 "내 양을 치라"와 "내 양을 먹이라"로 바뀐다. 셋째, 세 번째 대화에서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근심했다"(혹은 "마음이 아파")는 내용이 첨가된다. 먼저, "이 사람들보다"라는 구절은 한 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굳이 반복해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어린양"과 "먹이라"/"치라"라는 단어는 저자가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셋째,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한 것은 자신이 예수를 세 번이니 부인했는데 예수가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자 이것이 생각나 마음이 아파한 것 같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화의 진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다. 이상을 통해서 세 번의 대화는 그 요지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는 아가파오(avgapa,w)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베드로는 필레오(file,w)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예수는 필레오 동사를 사용하고 베드로는 필레오 동사로 대답합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두 동사가 각각 동의어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만약 아가파오가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필레오가 친구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이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이 대화는 이런 것이 된다. 처음 두 번의 대화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신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베드로는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친구로서 사랑한다고-예수의 말을 부정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부정한 자로서 겸손한 태도로- 대답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대화에서 예수는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자신을 신적인 사랑이 아닌 친구로서의 사랑을 하느냐고 묻게 되고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 됩니다.

4.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요한복음 전체와 본문에서의 위 두 동사의 쓰임새와 문맥에서 볼 때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우선,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주로 아가파오 동사가 쓰였는데 필레오 동사와 흔히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20:2; 21:7). 둘째, 본문 자체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기 위해 이 질문을 함으로써 베드로의 위상을 높여 주려는 의도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사랑의 종류를 물어보려고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아가파오)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사랑(필레오)이 본문에서 의도된 것이라면 세 번째 대화에서 예수가 자신을 친구로서의 사랑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근심하거나 마음이 아파하기보다는 예수가 자신을 이해해 준 것에 기뻐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예수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의 위상을 높여 주고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준 것에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자격으로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최초의 교황이며 이 목양의 사명은 교황에게 승계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목양의 사명은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사명을 이어받은 안수 받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여기서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요

한복음 전체에서 늘 그랬듯이 제자들의 대표로서 받은 것이라면, 이 목양의 사명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사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본질상 구분하는 것은 신약성서 자체에서는 낯선 개념입니다. 독점적 성직자인 "감독" 혹은 "장로"의 직분이 현재의 성직자와 평신도 개념으로 발달한 것은 이단의 득세에 따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 개념을 도입한 이 세기 이후입니다. 신약성서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와 평신도는 본질이 아니라 그 기능에 의해서만 구분될 뿐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수 부활 혹은 승천 기사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선교명령을 하는 것으로 끝맺는데(마 28:16-20; 막 16:15-18; 요 20:19-23; 행 1:8) 이 명령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듯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목양의 사명 또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7. 목양의 사명을 받고 예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애제자가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목도합니다. 요한복음 내내 선의의 경쟁 관계로 묘사된 이 두 인물은 이곳에 마지막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할 사명이 있음을 예수께로부터 들은 후 애제자는 어떻게 되겠는지를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는 애제자의 사명과 운명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예수의 말 중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애제자를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라는 내용의 말이 공동체 안에서 오해되어 그가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생깁니다.

8. 이 구절에서 베드로와 애제자가 죽음의 종류에 관해서 비교되어 나타나며 이것은 어떤 죽음이 더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 공동체 내에서 논쟁이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의 순교적 죽음과 애제자의 장수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한 죽음인가? 초기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사보다 순교가 더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계 20:4). 하지만 요한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애제자가 장수(長壽)한 것이 예수의 재림과 연관하여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22절).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애제자의 운명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23절은 그것을 교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제자의 죽음의 종류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애제자 사후에 발생했을 것입니다(23-24절). 여기서 애제자의 증언을 기록한 사람들은(24절) 애제자가 장수한 것이 베드로의 순교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13장부터 이 본문까지 계속된 베드로와 애제자의 경쟁 모티브가 대단원을 맞게 됩니다. 이들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각각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9. 24절에 보면 이 애제자가 바로 요한복음 내용에 있는 예수 행적과 말씀에 대한 증인이며 동시에 저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그래서 애제자는 증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향유한다. 그래서 이 구절 기저에는 애제자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베드로의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동등 혹은 우월하다는 암시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처럼 여기서 애제자는 부활한 예수를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며 동시에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이상적인 제자로 설정된 애제자에 대한 언급으로 요한복음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도마의 신앙고백과 그것에 대한 찬사로 마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0. 마지막으로 저자는 요한복음이 어떻게 저술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5절). 첫째, 이 책은 예수의 행적에 관한 것이다. 둘째, 저자가 알고 있는 예수의 행적은 여기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많아서 만약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그 책을 수용하기에 부족할 정도다. 이러한 표현은 문학적 과장법으로서 저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전승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저자가 20:30에서 예수가 행한 표적에 관해서 말했던 것이다. 거기에서는 자료를 선택한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믿게 하는 데 있다고 한다(20:31). 21:25에서는 저자의 자료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1. 요한복음 저자는 마지막 장을 에필로그의 성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저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1) 첫째, 예수의 육체적 부활은 확실히 일어난 것으로서 예수가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 현현 시 제자들과 함께 조반으로 물고기를 먹었는데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그 물고기의 정확한 숫자(153마리)까지 기억하고 있는 정도다.

2) 둘째, 예수의 부활현현은 제자들에게 교회 시대에 사명을 주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양의 사명이다.

3) 셋째,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순교자의 길도 있고, 장수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있다. 저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이 사명의 종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논란을 종식시키려 한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사명이 각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저자는 복음서 전체의 결론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를 언급한다.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예수 어록의 수집물이나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가 생각하기에 독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 혹은 목회적 권면을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신의 신학에 입각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사역의 결말인 부활과 그 의미와 부활을 믿는 자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Ⅶ. 나가는 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2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부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2)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내[우리]가 주를 보았다.”
3) 예수 부활현현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준다.